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27) 국립광주박물관 '밀리터리 뮤지엄'

삭막하고 힘든 군생활에 멋진 '추억 만들기'

지난 24일 오후 국군함평병원 적십자 봉사실은 환자복을 입은 군인들로 북적였다. 휠체어를 타거나 복발을 짚기도 해 거동이 조금씩 불편하기는 했지만 먹물로 '무등산' 그림을 그리는 군인들의 모습은 진지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이 진행하는 '밀리터리 뮤지엄(Military Museum)'에 참여한 군인들은 약 40여명.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작품인 '무등산도' 화첩에 실린 그림 가운데 하나를 '지두화(指頭畵·손바닥이나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서 그린 그림) 체법을 하느라 열심히다. 손가락에 먹물을 묻혀 숲과 나무를 그리고, 세심한 손질이 필요한 부분은 이쑤시개로 그려나간다. 또 지도를 맡고 있는 박물관 화예 교육사 이영신·최미경씨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자신들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을 완성한 군인들은 자신의 그림을 들고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며 멋진 추억도 만들었다.

국군함평병원 장병들은 매일 한차례씩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한다. 지난 22일 박물관을 찾은 부대원들은 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보고 조상들이 사용했던 유물인 '곱은 옥'을 활용해 목걸이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밀리터리 뮤지엄은 삭막하고 때론 힘든 군 생활에 윤택유 역할을 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광주박물관이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군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밀리터리 뮤지엄은 지난해까지 4~5회 진행되다 올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미 23차례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공군 제 1전투비행단, 제 1989 부대 헌병대, 31사단 503여단, 31사단 포병대대 등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박물관 관람 등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에 무게중심을 두는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시회 등에 소개된 작품들을 소재로 진행한다.

지금까지 옛 선조들이 만들었던 방식으로 책을 제작해 시와 글, 편지를 쓰는 '마음을 담은 옛 책'을 비롯해 '종이 위로 떠오르는 우리 문양', '금으로 그린 사경절첩본', '방구 부체에 담은 옛 그림', '합죽선에 피어난 모란', '광주령 동판 액자', '까치 호랑이 민화', '곱은 옥 목



지난 22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밀리터리 뮤지엄'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군함평병원 장병들이 '곱은 옥 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박물관서 체험 활동... 학예사가 군부대 직접 방문도 옛그림 그리기·전통 장신구 만들기 등 프로그램 다채

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밀리터리 뮤지엄은 군인들이 직접 박물관을 찾아와 관람과 체험학습을 하는 '고인 밀리터리 뮤지엄'과 박물관 화예연구사가 직접 군부대를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커밍 밀리터리 뮤지엄'은 두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밀리터리뮤지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국군함평병원(병원장 경희두 대령)이다.

오래전부터 신입 이등병 교육을 진행하며 광주·전남 지역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둘러봤던 국군함평병원은 지난 4월 광주국립박물관에 들렀다 '밀리터리 뮤지엄'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적극 참여하게 됐다.

매달 한차례는 40명씩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매달 두차례씩은 학예 교육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에게 문화 향기를 전하고 있다. 병원은 다음달 국군함평병원 창설 기념일을 맞아 환자들만 만든 작품을 전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육 실무를 맡고 있는 국군함평병원 이세철 주임원은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만 머물러 있어 문화나 여가 활동을 할 기회가 없는데 박물관에서 직접 찾아와 프로그램을 진행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밀리터리 뮤지엄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병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군인들 역시 프로그램에 아주 만족했다. 김진섭 일병은 "처음 한국화 그리는 법을 배웠는데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잘 따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국화에 대해 좀 더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신 화예교육사는 "우리 지역에 머물고 있는 군인들은 다양한 지역 출신이라 광주 전남 지역을 잘 알지 못한다"며 "지역 문화를 알리는 핵심 기관인 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전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570-7053. /협평=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그 밖의 '희망 대상 프로그램'



지난 14일 국립광주박물관을 찾은 말레이시아인들이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인 'Sparkling Museum for Foreigner'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전통문양 체험·한국 이미지 그리기...

외국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위한 프로그램 풍성

국립광주박물관은 군인들 뿐 아니라 좀처럼 문화 체험을 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희망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박물관측은 흔히 쓰는 '문화 소외계층'이라는 말 대신 '문화 희망 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시 관람이나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 전시 유물을 연계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접목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달에 두차례 이상 진행되는 '아름다운 우리 문양 체험 교실'은 장애인 양로원과 보육원생, 저소득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누리관 어린이 박물관 관람과 한국 전통 문양과 관

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Sparkling Museum for Foreigner'은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도교육청과 연계해 한국에서 활동중인 원어민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를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국인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주 프로그램은 '한국의 옛 책', '흙으로 빚는 삼강 문양', '손으로 그리는 한국의 이미지', '마한의 왕이 되어', '종이 위로 떠오르는 문양' 등이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문의 062-570-70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본부

후원: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1월 14(금) 오픈

11월 14(금) **장윤정**

광주첨단·특스존엄 **호박 나이트**

15일 16일 조항조	17일 18일 송대관	20일 21일 최진희	25일 26일 박현빈	27일 28일 김수희	4일 5일 현운도
-------------	-------------	-------------	-------------	-------------	-----------